



일본 지진과 설비건설업

김현회 / 원켄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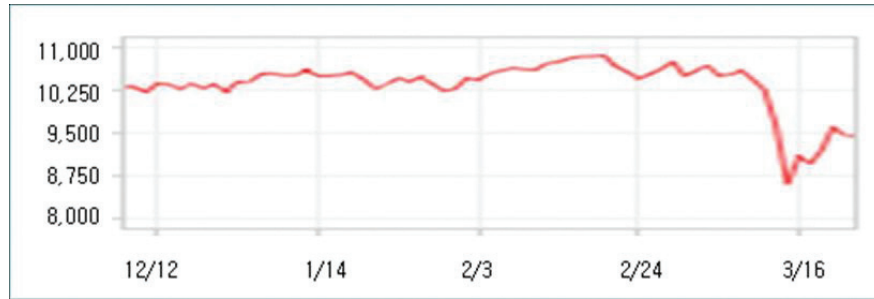
‘일본 대지진이 우리 설비건설업계와 무슨 관련이 있나?’ 하고 의아해하는 분이 있을 것이다. 신문방송학 이론 중 뉴스 가치(News Value)라는 것이 있다. 언론에서 뉴스를 선택하는 기준인데, 그 기준 중에 근접성(Proximity)이라는 것이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나라에서 사람 수만 명 죽은 것보다 내 집에 강아지 죽은 것이 더 큰 뉴스거리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일본 대지진은 우리 설비업계에 이슈 조차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잠시 후 좀 더 살펴보자.

(2011년 3월~ 2011년 4월 자재 동향)

자재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을 기점으로 주요 자재 단가 상승세 - STS관 BASE 300원 인상, STS용접부속 3월 14일 협가 인상 - 강관 네고율 2월 대비 10% 인상, 강관용접부속 협가 인상. 10% 인상된 강관 신탁가 4월 공시 예정. 강관용접부속은 늦어도 5월 이전에 인상될 가능성 농후 - 동관 2월 대비 LME 333원 인상. 동부속 3월에 25% 인상 - 보온재(발포PE, 고무발포) 협가 인상, 4월부터 적용 - 유화제품 4월부터 인상 적용 예정
강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철강업체 조업 차질. 국내 철강업체는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견해 지배적 - 일본 대지진이 강관 4월 신탁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대략 30% 인상될 수도 있음 - 용접부속은 5월 이전에 추가 인상 예견됨
동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리 원자재 가격 3월에 주춤. 말일까지 변화 없다면 4월 LME시세는 대략 100원 정도 인하될 가능성 있음 - 동부속류는 3월에 25% 인상되었음
STS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S관은 니켈 국제 원자재 시세 하락했으나 니켈 원소재 자체의 공급부족으로 큰 폭의 BASE 인하는 없음. 4월도 전월과 동일 또는 소폭 인하 예상 - STS 용접부속은 3월 중순 인상 후 상반기 내 변동은 없을 것임
구매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사들의 제조 물량 조절로 자재 확보 어려움. 대리점, 제조사 등 공급업체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통하여 단가 인상 유보, 품귀 물량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여 함 - 현장 TurnKey 방식 계약 또는 자재 선 계약 등의 전략 필요.



* 최근 3개월간 일본 니케이225 지수 변화



(자료: 원켄네트웍스, 2011년 2월)

우선 일본 이야기부터 하자. 앞의 그래프에서 예견할 수 있듯이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일본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크게는 4%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 성장률도 많게는 0.24%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다. 특히 이번 지진은 지금까지의 여타 지진과 달리 원전 설비 가동 중단과 이에 따른 전력 공급 차질이 이어져 산업 전반에 걸쳐 복구 지연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산업 전 분야 특히 제조업에서의 조업 중단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반사이익을 일부 얻을 수 있다고 한다. 크게는 0.25%정도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설비업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반사 이익보다는 일부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피해 복구에 따른 설비 자재 부족으로 일부 물품은 일본으로 유입되고 있다. 또 일본의 제강사들이 피해를 입어 철강 관련 제품들은 원재료 공급 부

족으로 품귀 현상이 올 수도 있다. 물론 일본의 복구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회원사가 있다면 그 혜택을 보겠지만 이는 확률적으로 극히 드물 것이다. 결국 한국경제 전체로 볼 때는 일본 지진이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우리 설비업계로 보면 그렇지 않아도 치솟는 자재비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래 저래 중장기적인 자재 확보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 🌈

김현회(金炫會) 총괄본부장 프로필



- 現원켄네트웍스(구 설비넷) 사업총괄 본부장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91년)
- 삼성그룹 공채 입사(91년, 삼성화재 발령)
- 홍보실 근무(사보, 사장단 연설문 작성, 사내방송PD, 언론·인터넷 담당 등)
- 삼성그룹디자인연구원 멀티미디어학과 및 UCLA Extention(뉴미디어, 스토리텔링 등) 과정 수료
- 시장개발 및 영업기획 업무 담당(PDA영업, 리플렛 기획 등)
- 인터넷사업팀 근무(삼성화재 전국애니카서비스망 구축, 전자 인터넷사업 기획 운영 등)